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대상, 전체로 확대

도교육청, 기존 '경력 10년 이상' 등 제한서 업무상 폐암 산재 승인 건수 증가 따라 반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으로 제한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대상을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급식종사자의 업무상 폐암 산재 승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폐암 검진 대상은 공·사립학교와 교육기관의 영양교사를 포함해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등이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검진 기관을 방문해 국가검진센터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 기관으로는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병원, 정읍의료원, 남원의료원, 부안성모병원, 고창병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확보를 위한 전가식 급식기구 교체 계획 수립 추진에도 적극 나섰다.

이는 친화적 급식실 조성 및 급식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모든 조리실 인력선 급식기구 1종 이상 교체를 기본으로 시행하고, 신설 및 개축학교 등 제반여건이 구비된 희망 학교는 4종 급식기구 전체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아재잘단기,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급식 기구 우선 지원을 통한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력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암 건강검진 확대도 전체 급식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이에 대한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도교육청에서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노동자'라는 구호 아래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환기시설 및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5일 급식노동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일 도교육청에서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노동자'라는 구호 아래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환기시설 및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자대회를 통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점검 대상학교 7,026개 학교 중 현재까지 점검이 완료된 곳은 1,487개 교다. 이 중 이상이 없다고 나타난 곳은 68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18개 학

교에서는 환기 시설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은 7개 점검 대상학교 중 34곳이 '이상 없음'으로 조사됐다. /정은성 기자

오늘 고3 연합학력평가

도내 98곳 1만6947명 응시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2일 시행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10월 학력평가에 전북에서는 98개교 고3 재학생 1만6,947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성적 처리 결과는 오는 27일부터 안내하며, 영예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가 제공된다.

다만 평가 당일 불가피하게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활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www.jbc.go.kr/jnro) 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www.gsatc.kr)에 접속해 '학부도, 교사, 학생' 문제지 자료실에서 문제지를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능 준비에 대한 최종 점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 진행요령과 교시별 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 예술놀이터 업무담당자 연수... 13일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오후 2시 30분 대안교육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학교 예술놀이터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예술놀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간 조성 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의 전미나 교사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예술놀이터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시, 공연, 예술체험 등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술놀이 공간을 말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하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40개교에 예술놀이터를 조성한다.

이후 5년 동안 20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활동이 펼쳐질 버디터"면서 "예술놀이터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농촌환경계획가 양성 '박차'

전북대, 대학원 과정 '농촌환경조경학과' 국내 첫 개설

위라벨 중시 시대 흐름에 발 맞춰... 17일부터 첫 모집

전북대학교가 농촌환경계획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인 농촌환경조경학과를 국내 처음으로 개설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 계획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조경학과와 농업경제학과의 합계 이 분야에 대한 협동과정을 준비해 오다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대는 17~19일 신입생 모집을 위한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일반전형은 11월 21~23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신입생 모집이 완료되면 전북대는 내년 1학기부터 농촌공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농촌 환경계획 및 조경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협동과정 주관학과인 인독수 학과장(조경학과)은 "농촌환경조경학과 대학원은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건설을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익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농촌경관에 대한 무한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전문기기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점에서 산정을"

전북교총, "교원 대폭 증원·신규교사 선발 늘려야"

"교원정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점에서 산정하고 수급하다."

지난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중등 교과교사가 28명 감소했고 특수(중등) 교사 4명, 보건교사 12명, 영양교사 16명, 사서교사 13명, 전문상담교사 33명이 각각 줄어 총 106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중)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과밀상태인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수가 1.913여개 넘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면서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서교사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겨우 5명에 불과하다"며 "사서교사 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은 축소될 것이

고, 현재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4월 기준, 도내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763곳에 배치된 정규직 사서교사는 90명으로 배치율은 11.6%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사서 신규교사를 전북 5명 밖에 모집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중등 특수교사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4명 줄어든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다" 정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등 교과교사 선발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교원 부족현상은 볼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고교학점제에서

는 학업성취,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학생의 교과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중등의 경우 2001년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3.9% 수준이었으나 2021년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이 18.4%에 달하는 등 중등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등학교 교원 5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은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를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전북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중학교의 경우 1,235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60.8%, 고등학교의 경우 61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36.9%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오직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지표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향상, 공교육 정상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은 지난 8일 교내 교사교육센터에서 2022학년도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영재교육원 82명 수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원장 김평)은 지난 8일 교내 교사교육센터에서 2022학년도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영재교육원생 82명과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병춘 총장의 축사 영상과 김평 원장의 인사말 및 수료증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영예별 공개수업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적 탐구 능력이 함양된

전북교사노조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전북교사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폐지를 하기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등 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북 유초등 교원 52.8% 비전북 유초등교원 47.2%가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5조 제1항 제2목에 나온 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

한 직권조사 폐지에 대해 9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94.2%가 찬성했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전환하자는 여론에는 93.6%가 동의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그동안 전북의 교사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매년 약 200명의 교사가 피조사자가 돼 조사

를 받았다. 9년이면 약 1,800명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셈"이라며 "전북의 교사가 약 1만1,800명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교사 중 일부는 피조사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살을 꿈꾸기도 한다. 피조사자가 된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전북의 교사가 피조사자가 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전북학생인권조례 관련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권역별 합동 컨설팅 | 도교육청, 내일까지 70개 학교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11~13일까지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호텔 세미나실에서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권역별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별 고교학점제 필수 과제 수행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단위 학교 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25학년도 전면 도입에 대비한 단위학교의 연차별 추진계획의 방향을 안내하고, 내년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필수 과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컨설팅에는 70개교 업무담당자가 참여하며 전주권역, 익산·군산·김제권역, 정읍의 9개 시·군 등 7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학급 규모와 특색에 따라 일별 4개 그룹으로 구성, 컨설턴트와 업무 담당자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의 수행 현황 확인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의 장"이라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교육청과 학교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인 교육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